



2020년 5월 19일

글로벌 투자기관, “한국 정부, 파리협정 이행목표 상향한다면 ‘넷제로’ 전환 통한 성장 기회 잡을 수 있을 것”

전 세계 수백조 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국제 투자자 그룹들은 14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한국이 파리협정 이행을 위해 보다 진전된 국가감축목표(NDC)를 발표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의 적극적 행보는 온실가스 배출 ‘넷제로(순배출 제로)’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기술 및 인프라를 갖추는 데에 더 많은 민간 투자를 유인할 것이며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기후변화에 관한 아시아투자자그룹(AIGCC),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기후변화 기관투자자그룹(IIGCC) 등 공개 서한을 주도한 국제 투자자들의 네트워크 기관 6곳은 이번 서한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상당히 유의미한 기후 대응 정책을 채택한 것을 환영한다는 내용과 함께 문재인 정부가 관련 정책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탄소세 도입, 석탄발전에 대한 공적금융 중단, 대규모 재생가능에너지 투자 등의 정책을 조속히 이행하고 2050년 탄소제로사회 실현을 위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준다면 친환경 에너지 기술 및 인프라에 더 많은 민간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러한 민간 투자 확대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를 살리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글로벌 투자자 그룹들은 이번 서한에서 한국 정부가 설정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2010년 대비 약 20% 저감)로는 2050년 탄소제로사회를 달성하기 어려우며, 올해에는 대폭 진전된 국가감축목표(NDC)를 제출하여 한국 정부의 이행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하였다. 내년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개최될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앞서 각국은 올해 안에 국가감축목표(NDC) 수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현재 각국 정부가 제출한 감축 목표치로는 전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로 한 파리협정 목표를 달성하기에 미흡하며 각국이 보다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해리 애쉬만 영국성공회 재무위원회 기업 관여 담당 분석관: “한국이 넷제로 목표를 설정하고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과 코로나 대유행으로부터 친환경적인 경제 회복을 달성하여 이 분야에서 아시아 지역에서 리더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란다. 정책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졌다. 이를 통해 저탄소 경제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경제성장을 회복할 수 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아시아 지역 내 노력을 촉발할 수 있다.”

박유경 APG 아태지역 책임투자부 부서장: “점점 더 많은 글로벌 투자자들은 민간 자본을 친환경 에너지와 청정 기술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싶어 하고, 이러한 사업들은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다. 한국은 이러한 경향을 활용할 기회가 생겼다. 그린 뉴딜 정책들을 발전시키고, 2050년까지 넷제로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함으로써,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되는 연간 약 2,460억 달러 중 상당 부분을 유치할 수 있다. 우선순위측면에서 한국의 금융기관들은 – 공적 기관 및 민간 부분 모두 –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신규 금융 제공을 취소하고 민간 자본이 청정에너지 분야에 가장 적합하게 투자되도록 투자 철회를 약속해야 할 것이다.”

레베카 미클라 라이트 ‘기후변화에 관한 아시아투자자 그룹(AIGCC)’ 국장: “파리협정에 부합하도록 감축 목표치를 새롭게 설정하고 기후 관련 공약을 신속히 이행한다면, 한국은 아시아 내 환경분야 리더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드라이브는 민간 투자를 이끄는 신호탄이 되며, ‘탄소제로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등에 더 많은 민간 투자를 유입할 수 있다. 이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를 부양하는 등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를 회복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피오나 레이롤즈 책임투자원칙(PRI) CEO: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전염병 사태로부터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하게 회복하려면 정부와 투자자 모두 기후 위기에 시급히 대응해야만 한다. 한국이 파리협정 이행을 핵심 축으로 하여 경기 부양책을 실시한다면 위기 극복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아시아 다른 국가들의 모범이 될 것이며, 글로벌 투자자에게도 보다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성장과 번영을 달성하려는 계획을 보여줄 것이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양춘승 상임이사: “세계 유수의 기관투자자들이 기후변화를 자산관리의 주요 리스크로 인식하고, 한국 정부의 확실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단순히 건강보건의 문제가 아니듯, 기후변화 또한 환경의 문제를 넘어 경제와 금융의 문제라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21대 국회 출범과 함께 현 정부 임기 안에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마련과 법 제도 개정이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

-- 끝 --

참고

기후변화에 관한 아시아투자자그룹(AIGCC),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환경책임경제연합 세레스(CERES), 기후변화 기관투자자그룹(IIGCC), 기후변화 투자자그룹(IGCC), 책임투자원칙(PRI) 등이 본 서한에 참여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한 서한의 전문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문](#)/[한국어](#))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할 경우 아래로 연락 주십시오 (영어):

Tom Arup
Director, Strategic Communications, AIGCC
+61(0)402482910
tom.arup@aigcc.net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할 경우 아래로 연락 주십시오 (한국어):

양춘승 상임이사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82-(0)10-9360-7742
karlcsy@kosif.org